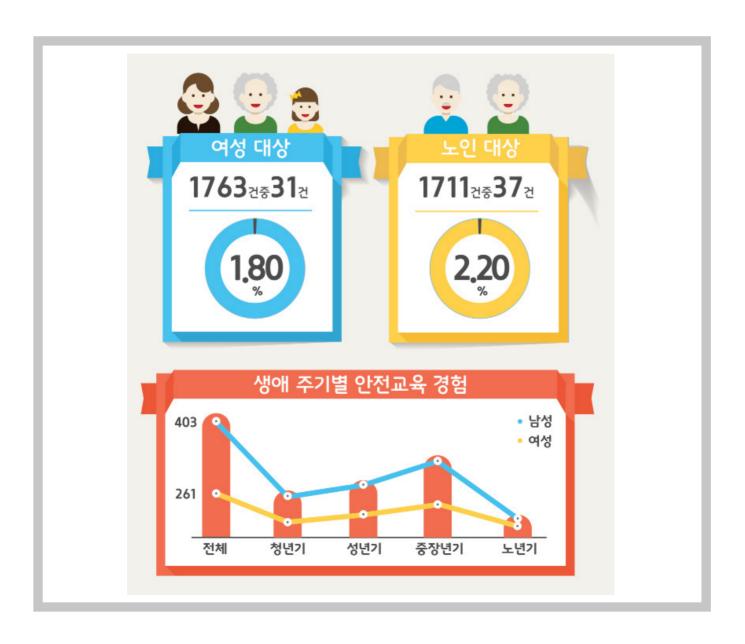
2016 연구보고서 10 DECEMBER 2016

KWDI이슈페이퍼

수행과제명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(I):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**과제책임자**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(Tel:02-3156-7133 / e-mail:mhchang@kwdimail.re.kr)

안전취약계층의 위험사각지대, 안전교육 통해 해소해야^{*}





초록

- 현재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안전정책이 시행되고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정책은 부재하며, 안전교육 역시 부족함.
-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과 생활공간으로 한정하여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여성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, 여성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.
- 연구 결과 여성과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. 안전교육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콘텐츠가 전체 1,763개 중 31개에 지나지 않아 여성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.
 - -또한 생애주기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콘텐츠가 가장 부족함.
 - -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콘텐츠는 생애주기를 구분할 수 있는 1,711개 중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는 2.20%인 37개에 지나지 않음.
 - -특히,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.
 - -본 연구의 안전실태조사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안전실천역량을 조사하였는데, 모든 안전 분야에서 노년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안전실천역량이 낮음.
- 또한 안전정책 연구자들과 안전교육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FGI(초점집단면접, Focused Group Interview)에서도 여성노인은 개인의 안전역량이 낮을뿐 아니라 손자녀를 돌보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부족함.
-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안전교육콘텐츠 강화와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이들집단의 안전사각지대를 감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

1. 배경 및 문제점

◎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 부각

- ▶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진이나 원전,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과 사고예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.
- ▶ 이에 정부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. 특히, 안전 취약집단인 노약자와 아동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함.

☑ 여성안전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

- ▶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안전교육의 접근성이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.
- ▶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과 생활공간으로 범위를 한정하여, 생애주기별로 여성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.
- ▶ 구체적으로 여성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현황과 안전교육현황을 파악함
- ▶ 현재 존재하는 안전교육콘텐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.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여성안전교육의 현황과 접근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함.

2. 조사 및 분석결과

◎ 성별분리 및 여성대상 안전콘텐츠 미비

- ▶ 안전교육콘텐츠 분석 결과 전체 1,763개 중 성별로 분리된 교육콘텐츠는 총 87개였으며,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는 31개, 남성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는 56개였음, 반면 성별을 분리하지 않은 교육콘텐츠는 1.676개였음.
- ▶ 생활안전 및 보건안전분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31개 안전교육콘텐츠는 화재안전(6개). 전기,가스안전(8개), 식품안전(1개), 중독안전(1개), 감염안전(1개), 응급처치(1개)였음.
- ▶ 또한 이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31개 모두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으며. 영유아 및 아동, 청소년,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 분리된 안전교육콘텐츠는 존재하지 않음.

전체 교육콘텐츠 1763개 전체 527개 (여성:14, 남성:49, 공통:464) 생활안전 전체 339개 (여성: 4, 남성: 0, 공통:335)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전체 168개 (여성: 5, 남성: 0, 공통 163) **사회기반세계안전** 전체 39개 (여성:0, 남성: 0, 공통: 39) 범죄안전 전체 368개 (여성: 4, 남성: 3, 공통: 361) 보건안전 전체 322개 (여성: 4, 남성: 4, 공통: 314) ■ 여성 ■ 남성 ■ 공통

[그림 1] 안전 분야별 교육대상 성별 분포

♡ 자녀의 유무에 따른 안전역량의 차이

▶ 성인기(30-44세)를 대상으로 한 안전역량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없는 남녀에 비해 자녀가 있는 남녀의 안전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 이러한 점에서 자녀의 유무는 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, 자녀가 없는 남성과 여성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

[그림 2] 18세 이하 자녀 유무별 성인기(30~44세) 안전역량의 성별 차이

♡ 노인대상 안전교육콘텐츠 미비

▶ 아래의 자료에서와 같이 전체 1,711개 안전교육콘텐츠 중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콘텐츠는 전체의 2,20%에 해당하는 37개에 불과하여 노인대상안전교육콘텐츠가 부족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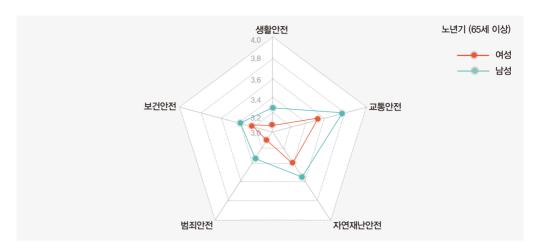
[그림 3] 생활안전 및 보건안전 분야 교육대상의 생애주기 분포

❷ 여성노인의 안전역량 부족

▶ 여성안전실태조사 결과 생애주기별로 성별 안전역량을 비교한 결과 노년기 집단은 전 분야 에서의 안전역량이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. 이러한 차이는 보건 안전분야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.



[그림 4] 안전 분야별 노년기(65세 이상) 안전역량의 성별 차이



〈표 1〉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의 성별 차이

구분	생애주기	남성	여성	t-value
생활안전 분야	노년기(65세 이상)	3.246	3.054	2.278*
교통안전 분야	노년기(65세 이상)	3.782	3.529	2,655**
자연재난안전 분야	노년기(65세 이상)	3.572	3,413	1.976*
범죄안전 분야	노년기(65세 이상)	3,378	3,095	2.410*
보건안전 분야	노년기(65세 이상)	3,381	3,234	1.538

주: *<0.05, **<0.01, ***<0.001

여성의 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

▶ 여성만을 대상으로 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, 학력 이 높을수록,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,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에 노출될수록,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안전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.

[표 2] 안전교육 경험과 안전역량에 대한 회귀분석(여성)

변수명	모델 (1)		모델 (2)		모델 (3)		모델 (4)	
	b	s.e	b	s.e	b	s.e	b	s.e
연령	0.000	0.001	0,005	0.003	0.003	0,003	0.001	0.006
소득	-0.000	0.004	0.004	0.006	0.001	0.005	-0.003	0.010
학력	0.107	0.021***	0.103	0.026***	0.095	0.025	0.169	0.049**
자녀 연령			-0.008	0.003*	-0.005	0.003	0.000	0,007
안전교육 정보					0,292	0.046***		
안전교육 경험							0.188	0.074*
_cons	2,892	0.120***	2,763	0.166***	3.043	0.167***	2,975	0.297***
R^	0.041		0.048		0.101		0.096	
N	996		672		672		214	

♥ 여성의 안전교육 감수성 및 안전역량부족

- ▶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 뿐 아니라 자녀의 안전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과 안전감수성 및 안전역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.
 - 이는 자녀들의 안전교육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.
 - 예를 들어, 횡단보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들은 자녀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무시할 수 있으며,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도록 교육받은 아동의 안전지식과 안점감수성을 감소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.

3. 정책제언

여성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성별분리된 위험통계 생산

▶ 위험 및 안전사고 통계들을 성별 ·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생산하는 것은 세부집단별로 위험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.

☑ 생애주기별 · 성별 안전정책 및 안전교육정책 강화

- ▶ 연구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애주기별, 성별 안전교육과 안전역량은 달라짐.
 - 예를 들어. 영유아기의 주 생활공간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.
 -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집단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며,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콘텐츠의 비중이 가장 낮음.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단별 상황에 적합한 안전정책과 안전교육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.

- ▶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기반하여 안전교육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▶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, 여성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,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행 및 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♡ 안전교육콘텐츠의 매뉴얼화 및 다양화

- ▶ 다양한 집단별 안전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, 생애주기별 통일된 안전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.
 - 같은 위험이라도 장소에 따라 위험에 처한 개인의 성별, 생애주기별, 공간별 등에 따라 위험의 정도와 대처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.

4. 기대효과

☑ 세부 집단별 위험 분석 및 사고예방 강화

▶ 위험 및 안전사고 통계들을 성별 ·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생산함으로써 현재 지역별 뿐 아니라 성별,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위험의 노출도를 파악할 수 있음. 또한 각 세부 집단별로 집단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.

▶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정책과 안전교육정책을 통하여 안전취약층인 노년과 아동 뿐 아니라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하게 함으로써 안전의 사각지대를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.

- ▶ 현재 안전교육이 보육,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의무화되어 있고, 안전교육강사들은 민간기관에서 양성하여 운영중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.
 - 그러나 안전교육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면, 안전교육을 받기 원하는 기관과 안전교육 강사 간에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.

♥ 여성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감수성 증대

▶ 성별, 생애주기별 위험통계 생산과 안전교육의 강화는 여성의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분석과 안전교육 접근이 용이해져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게 되며, 여성으로 하여금 안전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.

주관부처: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

관계부처: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

